

Original Article

정형도수물리치료에 대한 물리치료 전공 대학생의 직업 인식도

정효창, 김성환, 유성훈¹⁾

남부대학교 물리치료학과 대학원생, 남부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¹⁾

A Study on the Occupational Perception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Physical Therapy for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Hyo-chang Jeong, Seung-hwan Kim, Seung-hun Yu¹⁾

Dept. of Physical Therapy, Graduate School, Nambu University
Dept. of Physical Therapy, Nambu University¹⁾

ABSTRACT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for college students' employment and career choice by investigating their job perception of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one of the physical therapy fields of physical therapy majors.

Methods: A total of 267 subjects were surveyed on occupational awareness among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physical therapy in Gwangju.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for frequency analysis and cross-sectional study using the SPSS 22.0 statistical program. A chi-square test was conducted to determine if there were any significant differences.

Results: As a result of the survey on the recognition of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interest in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was high, but the method of treatment, effectiveness and information were insufficient.

Conclusions: For the awareness and education of students'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schools and institutional organizations need education and special lectures on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for students.

Key Words:

College student, Occupational perception,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I. 서론

선진국에서는 높은 양질의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열, 전기 물리치료만이 아닌 전문성을 높인 물리치료에 대한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물리치료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경우는 미국물리치료사협회(APTA)에서 임상전문물리치료사 인증프로그램으로 심폐, 임상 전기 생리, 노인, 신경, 정형외과,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임상전문 물리치료사를 배출하여 앞으로 물리치료사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짐을 강조하고 있다(An 등 2018; Park 등 2010).

물리치료 분야에서 정형도수물리치료는 신체의 기능장애가 있는 근골격계질환 등을 대상으로 해부학적 및 척추운동역학적 병변에 대한 지식을 가진 시술자가 손을 이용하여 통증이 없는 최대한의 가동범위와 자세의 균형을 확보하여 신체기능향상을 유도하는 치료법이다(Wolf와 Brault, 2015).

정형도수물리치료는 약품이나 의료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의 사용만으로 각종 질환을 치료하는 기술로써, 물리적인 인자 중 역학적인 힘으로 물리치료사가 치료와 검진을 위한 전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Kim 등, 2005).

정형도수물리치료의 영역은 매우 다양하며 치료적 마사지부터 관절 가동술 및 교정까지 광범위한 기법과 치료적 운동들이 포함된다. 또한, 팔, 다리 관절 기능장애, 척추 관련 질환, 턱관절 기능장애, 두통, 신경 포착 증후군 등을 도수치료를 적용하여 치료하고 있으며 환자들의 관절 운동의 움직임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양적으로도 운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해, 관절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통증을 줄이는 치료이며 신경의 긴장 조절 및 가동성을 향상시키고 전체적인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Moon 등, 2020).

IFOMT에서는 정형도수물리치료를 임상 추론에 근거한 신경-근골격계 질환 관리를 위한 물리치료의 전문 영역으로, 수기법, 치료적 운동 등 매우 구체적인 치료 접근법을 사용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치료하는 형태나 방법에 따라 지압, 마사지, 추나 등과 같이 다양한 명칭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도의 차이에 따른 정형도수 물리치료의 효과로는 피부의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혈액과 림프액이 개선되어 신진대사의 활성화 및 조직의 영양 상태가 변화되며,

근육의 생리적 흐름과 몸 전체의 기능이 조절 및 강화로 인해 여러 장기의 이상으로 생긴 병들에 좋은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Kim, 2007).

물리치료 분야의 근골격계질환 손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형도수물리치료의 전망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들 또한 물리치료 분야 중 선호 분야가 손을 이용한 도수치료라는 결과가 나타났다(Kim과 Pack, 2004).

물리치료학과 대학생의 경우 진로나 취업 선택에 있어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의뢰기관의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과 임상 실습을 제외하고는 물리치료 임상에서 도수치료에 대한 실증적 접근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변화에 따라 발전하고 있는 물리치료의 중요한 분야인 정형도수물리치료에 대한 물리치료 전공 대학생들의 기본 정보인 진로, 직무 내용, 전문성 등과 전문성이 필요한 정형도수물리치료 내용에 대해 직업 인식도가 낮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설문으로 조사, 분석하고 앞으로 물리치료 분야의 변화에 맞춰 학생들도 전반적인 직업 인식도 이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및 기간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광주광역시 소재의 물리치료 전공 대학생 대상으로 30부를 배포하여 전체 설문지를 회수하여 사전 예비조사(pre-test)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물리치료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통한 설문지 배부와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297부를 배포하여 조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연구 도중에 발생한 무응답 및 불성실 응답을 분류하여 30부를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67부를 분석하였다.

2. 측정 도구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직업 인식도(Park, 2013)와 진로선호도(Kim 등, 2005)의 물리치료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 질문을 작성하였으며, Lee(2018)의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새로 수정, 보완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3문항, 전공에 대한 정보 2문항, 정형도수물리치료에 관한 직업 인식도 관련 설문 5문항으로 총 10문항의 설문지로 구성하였다.

매우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자가 보고식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를 신뢰도로 구했을 때 Cronbach's $\alpha = .619$ 이었다. 신뢰계수의 α 값이 .6 이상이므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된 설문지는 물리치료학과 교수와 임상 경력이 10년 이상인 물리치료사들에게 의견을 수렴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통계프로그램 SPSS 22.0을 이용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이용하였으며, Cronbach's α 를 이용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여 측정항목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았다.

측정값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정형도수물리치료 인식과 관련된 사항에서 성별, 학년, 나이로 구분하여 교차분석을 실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행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alpha = .05$ 로 정하였다.

III.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로는 여학생이 168명(62.9%)으로 남학생 99명(37.1%) 보다 많았으며 학년으로는 1학년 71명(26.6%), 2학년 67명(25.1%), 3학년 72명(27.0%), 4학년 57명(21.3%)으로 구성되었다. 나이는 20~23세 204명(76.4%), 24~26세 60명(22.5%), 27~29세 3명(1.1%)로 20~23세가 가장 많았다(Table 1).

2. 물리치료에 대한 전공 선택

1) 물리치료 전공 선택 동기 요인

물리치료 전공 선택 동기 요인은 통계적으로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성별과 임상(현장)실습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성별 : $X^2 = 16.453 / p = .002$, 나이 $X^2 = 21.278 / p = .006$).

성별, 학년, 나이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남학생 33명(12.4%), 여학생 97명(36.3%), 1학년 41명(15.4%), 2학년 36명(13.5%), 3학년 27명(10.1%), 4학년 26명(9.7%)으로 ‘취업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으로 구분하였을 때 2학년 11명(4.1%)으로 ‘흥미에 맞을 것 같아서’와 4학년 11명(4.1%)으로 ‘부모님 또는 주위의 권유로’ 그리고 3학년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와 ‘흥미에 맞을 것 같아서’가 각각 17명(6.4%)으로 공동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을 제외한 성별, 학년(1학년), 나이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에는 20~23세 114명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24~27세 16명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	Number(n)	Percentage (%)
Sex	Male	99	37.1
	Female	168	62.9
Grade	Freshman	71	26.6
	Sophomore	67	25.1
	Junior	72	27.0
	Senior	57	21.3
Age (yrs)	20~23	204	76.4
	24~26	60	22.5
	27~29	3	1.1
	Total	267	100

2) 물리치료 전공 선택 영향요인

물리치료 전공 선택 영향요인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성별, 학년, 나이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5$).

전반적으로 ‘자신’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부모’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나누어 보았을 경우 남학생의 경우는 ‘자신’이 54명(20.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부모’ 31명(11.6%)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자신’이 105명(39.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 53명(19.9%)로 나타났다. 학년과 나이로 나누어 보았을 때 모든 학년에서 ‘자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2.
Factors motivation physical therapy major selection

		Aptitude	Interest	Employment outlook	Grade	Recommend parents	Total
Sex	Male	22(8.2) ^a	21(7.9)	33(12.4)	3(1.1)	20(7.5)	99(37.1)
	Female	28(10.5)	22(8.2)	97(36.3)	5(1.9)	16(6.0)	168(62.9)
Grade	Freshman	13(4.9)	8(3.0)	41(15.4)	3(1.1)	6(2.2)	71(26.6)
	Sophomore	10(3.7)	11(4.1)	36(13.5)	2(.7)	8(3.0)	67(25.1)
	Junior	17(6.4)	17(6.4)	27(10.1)	0(0)	11(4.1)	72(27.0)
Age (yrs)	Senior	10(3.7)	7(2.6)	26(9.7)	3(1.1)	11(4.1)	57(21.3)
	20~23	34(12.7)	29(10.9)	114(42.7)	6(2.2)	21(7.9)	204(76.4)
	24~26	16(6.0)	13(4.9)	15(5.6)	2(.7)	14(5.2)	60(22.5)
	27~29	0(0)	1(.4)	1(.4)	0(0)	1(.4)	3(1.1)

^aNumber(%), Sex $X^2=16.453$ / $df=4$ / $p=.002$, Year $X^2=15.610$ / $df=12$ / $p=.210$, Age $X^2=21.278$ / $df=8$ / $p=.006$

Table 3.
Factors affecting physical therapy major selection

		One self	Parents	Professor	Senior and friends	Total
Sex	Male	54(20.2) ^a	31(11.6)	6(2.2)	8(1.1)	99(37.1)
	Female	105(10.5)	53(19.9)	2(.7)	8(3.0)	168(62.9)
Grade	Freshman	45(16.9)	21(7.9)	3(1.1)	2(.7)	71(26.6)
	Sophomore	43(16.1)	23(8.6)	0(0)	1(.4)	67(25.1)
	Junior	42(15.7)	20(7.5)	3(10.1)	7(2.6)	72(27.0)
Age (yrs)	Senior	29(10.9)	20(7.5)	2(9.7)	6(2.2)	57(21.3)
	20~23	125(12.7)	65(24.3)	5(1.9)	9(3.4)	204(76.4)
	24~26	32(12.0)	18(4.9)	3(1.1)	7(7)	60(22.5)
	27~29	2(.7)	1(.4)	0(0)	0(0)	3(1.1)

^aNumber(%), Sex $X^2=6.739$ / $df=3$ / $p=.081$, Year $X^2=11.788$ / $df=9$ / $p=.226$, Age $X^2=5.922$ / $df=6$ / $p=.432$

3. 정형도수물리치료에 대한 인식도

1) 정형도수물리치료 개념에 대한 인식도

정형도수물리치료 개념에 대한 인식도에서 통계적으로 성별, 학년, 나이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성별 : $X^2=9.872$ / $p=.043$, 학년 : $X^2=47.476$ / $p=.000$, 나이 : $X^2=21.878$ / $p=.005$).

성별로 나누었을 경우, 남학생은 ‘그렇다’ 41명(15.4%), ‘보통이다’ 37명(13.9%)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보통이다’ 72명(27.0%), ‘그렇다’ 65명(24.3%)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나누었을 경우, 1학년은 ‘보통이다’ 31명(11.6%), ‘아니다’ 20명(7.5%)순으로 나타났으며, 2학년은 ‘보통이다’ 32명(12.0%), ‘그렇다’ 26명(9.7%), 3학년은 ‘그렇다’ 37명(13.9%), ‘보통이다’ 23명(8.6%), 4학년은 ‘그렇다’ 29명(10.9%), ‘보통이다’

23명(8.6%) 순으로 나타났다. 나이로 나누었을 경우, 20~23세는 ‘보통이다’ 90명(33.7%), ‘그렇다’ 72명(27.0%), 24~26세는 ‘그렇다’ 33명(12.4%) ‘보통이다’ 18명(6.7%)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2) 정형도수물리치료 효과에 대한 인식도

정형도수물리치료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에서 통계적으로 성별과 학년, 나이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성별 : $X^2=14.154$ / $p=.007$, 학년 : $X^2=41.956$ / $p=.000$, 나이: $X^2=24.315$ / $p=.002$).

성별로 나누었을 경우, 남학생은 ‘그렇다’ 45명(16.9%), ‘보통이다’ 33명(12.4%)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보통이다’ 82명(30.7%), ‘그렇다’ 57명(21.3%)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나누었을 경우, 1학년은 ‘보통이다’ 34명(12.7%), ‘아니다’ 19명(7.1%) 순으로 나타났으며, 2학년은 ‘보통이다’ 33명(12.4%), ‘그렇다’

Table 4.
Do you know what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is like?

		Very likely	Likely	Normal	Unlikely	Very unlikely	Total
Sex	Male	11(4.1) ^a	41(15.4)	37(13.9)	10(3.7)	0(0)	99(37.1)
	Female	5(1.9)	65(24.3)	72(27.0)	23(8.6)	3(1.1)	168(62.9)
Grade	Freshman	3(1.1)	14(5.2)	31(11.6)	20(7.5)	3(1.1)	71(26.6)
	Sophomore	2(.7)	26(9.7)	32(12.0)	7(2.6)	0(0)	67(25.1)
	Junior	8(3.0)	37(13.9)	23(8.6)	4(1.5)	0(0)	72(27.0)
Age (yrs)	Senior	3(1.1)	29(10.9)	23(8.6)	2(.7)	0(0)	57(21.3)
	20~23	8(3.0)	72(27.0)	90(33.7)	31(11.6)	3(1.1)	204(76.4)
	24~26	7(2.6)	33(12.4)	18(6.7)	2(.7)	0(0)	71(26.6)
	27~29	1(.4)	1(.4)	1(.4)	0(0)	0(0)	3(1.1)

^aNumber(%), Sex $X^2=9.872 / df=4 / p=.043$, Year $X^2=47.476 / df=12 / p=.000$, Age $X^2=21.878 / df=8 / p=.005$

24명(9.0%), 3학년은 ‘그렇다’ 36명(13.5%), ‘보통이다’ 24명(9.0%), 4학년은 ‘그렇다’ 28명(10.5%), ‘보통이다’ 24명(9.0%) 순으로 나타났다. 나이로 나누었을 경우, 20~23세는 ‘보통이다’ 98명(36.7%), ‘그렇다’ 67명(25.1%), 24~26세는 ‘그렇다’ 34명(12.7%) ‘보통이다’ 15명(5.6%)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3) 정형도수물리치료 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도

정형도수 물리치료 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도에서 통계적으로 나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 학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나이: $X^2=17.097 / p=.029$).

성별로 나누었을 경우, 두 그룹 모두 ‘보통이다’ 34명(12.7%), 73명(27.3%), 그다음으로 ‘아니다’ 28명(10.5%), 54명(20.2%)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나누었을 경우, 모든 학년에서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아니다’, ‘매우 그렇다’ 순으로 나타났다.

나이로 나누었을 경우, 20~23세는 ‘보통이다’ 88명(33.0%), ‘아니다’ 62명(23.2%), 24~26세는 ‘보통이다’ 19명(7.1%) ‘아니다’ 19명(7.1%) 순으로 나타났다(Table 6).

4) 정형도수 물리치료 종사자 급여에 대한 인식도

정형도수 물리치료 종사자 급여에 대한 인식도에서 통계적으로 성별과 나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학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학년 : $X^2=23.771 / p=.022$).

성별로 나누었을 경우, ‘그렇다’ 남학생 46명(17.2%), 여학생 95명(35.6%)으로 가장 높았고, ‘매우 그렇다’ 남학생 29명(10.9%), 여학생 38명(14.2%)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나누었을 경우, ‘그렇다’ 1학년 34명(12.7%), 2학년 41명(15.4%), 3학년 33명(12.4%), 4학년 33명(12.4%)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1학년 ‘매우 그렇다’ 19명(7.1%), 2학년은 ‘보통이다’ 19명(7.1%), 3학년은 ‘매우 그렇다’ 25명(9.4%), 4학년은 ‘매우 그렇다’

Table 5.
Do you know the effects of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Very likely	Likely	Normal	Unlikely	Very unlikely	Total
Sex	Male	11(4.1) ^a	45(16.9)	33(12.4)	10(3.7)	0(0)	99(37.1)
	Female	5(1.9)	57(21.3)	82(30.7)	22(8.2)	2(.7)	168(62.9)
Year	Freshman	2(.7)	14(5.2)	34(12.7)	19(7.1)	2(.7)	71(26.6)
	Sophomore	4(1.5)	24(9.0)	33(12.4)	6(2.2)	0(0)	67(25.1)
	Junior	8(3.0)	36(13.5)	24(9.0)	4(1.5)	0(0)	72(27.0)
Age (yrs)	Senior	2(.7)	28(10.5)	24(9.0)	3(1.1)	0(0)	57(21.3)
	20~23	8(3.0)	67(25.1)	98(36.7)	29(10.9)	2(.7)	204(76.4)
	24~26	8(3.0)	34(12.7)	15(5.6)	3(1.1)	0(0)	60(22.5)
	27~29	0(0)	1(.4)	2(.7)	0(0)	0(0)	3(1.1)

^aNumber(%), Sex $X^2=14.154 / df=4 / p=.007$, Year $X^2=41.956 / df=12 / p=.000$, Age $X^2=24.315 / df=8 / p=.002$

Table 6.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information on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Very likely	Likely	Normal	Unlikely	Very unlikely	Total
Sex	Male	8(3.0) ^a	26(9.7)	34(12.7)	28(10.5)	3(1.1)	99(37.1)
	Female	3(1.1)	34(12.7)	73(27.3)	54(20.2)	4(1.5)	168(62.9)
Grade	Freshman	1(.4)	14(5.2)	28(10.5)	24(9.0)	4(1.5)	71(26.6)
	Sophomore	4(1.5)	16(6.0)	29(10.9)	17(6.4)	1(.4)	67(25.1)
	Junior	5(1.9)	18(6.7)	26(9.7)	22(8.2)	1(.4)	72(27.0)
Age (yrs)	Senior	1(.4)	12(4.5)	24(9.0)	19(7.1)	1(.4)	57(21.3)
	20~23	4(1.5)	44(16.5)	88(33.0)	62(23.2)	6(2.2)	204(76.4)
	24~26	6(2.2)	15(5.6)	19(7.1)	19(7.1)	1(.4)	60(22.5)
	27~29	1(.4)	1(.4)	0(0)	1(.4)	0(0)	3(1.1)

^aNumber(%), Sex $X^2=8.690 / df=4 / p=.069$, Year $X^2=16.567 / df=12 / p=.167$, Age $X^2=17.097 / df=8 / p=.029$

다' 16명(6.0%)으로 나타났다. 나이로 나누었을 경우, 20~23세는 '그렇다' 106명(39.7%), '매우 그렇다' 49명(18.4%), 24~26세는 '그렇다' 33명(12.4%) '매우 그렇다' 17명(6.4%)순으로 나타났다(Table 7).

5) 정형도수 물리치료 종사자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도

정형도수 물리치료 종사자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도에서 통계적으로 학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성별과 나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학년 : $X^2=23.771 / p=.022$).

성별로 나누었을 경우, 남학생은 '보통이다' 38명(14.2%), '그렇다' 34명(12.7%)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보통이다' 73명(27.3%), '그렇다' 65명(24.3%)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나누었을 경우, 1학년은 '보통이다' 32명(12.0%), '그렇다' 28명(10.5%)순으로

나타났으며, 2학년은 '보통이다' 39명(14.6%), '그렇다' 20명(7.5%), 3학년은 '그렇다' 25명(9.4%), '보통이다' 24명(9.0%), 4학년은 '그렇다' 26명(9.7%), '보통이다' 16명(6%) 순으로 나타났다. 나이로 나누었을 경우, 20~23세는 '보통이다' 90명(33.7%), '그렇다' 76명(28.5%), 24~26세는 '그렇다' 22명(8.2%) '보통이다' 20명(7.5%) 순으로 나타났다(Table 8).

IV. 고찰

본 연구는 물리치료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별, 학년, 나이에 따른 정형도수물리치료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학생들의 인식도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효과적인 진로 교육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Park(2012)의 선행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성별, 학년, 나이에 따른 진로 선호도에서

Table 7.
Awareness of the salary of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workers

		Very likely	Likely	Normal	Unlikely	Very unlikely	Total
Sex	Male	29(10.9) ^a	46(17.2)	22(8.2)	1(.4)	1(.4)	99(37.1)
	Female	38(14.2)	95(35.6)	34(12.7)	1(.4)	0(0)	168(62.9)
Grade	Freshman	19(7.1)	34(12.7)	18(6.7)	0(0)	0(0)	71(26.6)
	Sophomore	7(2.6)	41(15.4)	19(7.1)	0(0)	0(0)	67(25.1)
	Junior	25(9.4)	33(12.4)	11(4.1)	2(.7)	1(.4)	72(27.0)
Age (yrs)	Senior	16(6.0)	33(12.4)	8(3.0)	0(0)	0(0)	57(21.3)
	20~23	49(18.4)	106(39.7)	47(17.6)	2(.7)	0(0)	204(76.4)
	24~26	17(6.4)	33(12.4)	9(3.4)	0(0)	1(.4)	60(22.5)
	27~29	1(.4)	2(.7)	0(0)	0(0)	0(0)	3(1.1)

^aNumber (%), Sex $X^2=4.262 / df=4 / p=.372$, Year $X^2=23.766 / df=12 / p=.022$, Age $X^2=6.750 / df=8 / p=.564$

Table 8.
Social status of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workers

		Very likely	Likely	Normal	Unlikely	Very unlikely	Total
Sex	Male	13(4.9) ^a	34(12.7)	38(14.2)	11(4.1)	3(1.1)	99(37.1)
	Female	12(4.5)	65(24.3)	73(27.3)	15(5.6)	3(1.1)	168(62.9)
Grade	Freshman	7(2.6)	28(10.5)	32(12.0)	4(1.5)	0(0)	71(26.6)
	Sophomore	3(1.1)	20(7.5)	39(14.6)	5(1.9)	0(0)	67(25.1)
	Junior	10(3.7)	25(9.4)	24(9.0)	10(3.7)	3(1.1)	72(27.0)
Age (yrs)	Senior	5(1.9)	26(9.7)	16(6)	7(2.6)	3(1.1)	57(21.3)
	20~23	18(6.7)	76(28.5)	90(33.7)	17(6.4)	3(1.1)	204(76.4)
	24~26	6(2.2)	22(8.2)	20(7.5)	9(3.4)	3(1.1)	60(22.5)
	27~29	1(.4)	1(.4)	1(.4)	0(0)	0(0)	3(1.1)

^aNumber (%), Sex $X^2=3.822 / df=4 / p=.431$, Year $X^2=23.771 / df=12 / p=.022$, Age $X^2=8.343 / df=8 / p=.401$

정형도수물리치료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 최근 물리치료의 추세를 보아 급여 수준이나 치료기법 등으로 인해 관심을 받고 있는 정형도수물리치료와 스포츠 물리치료를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형도수물리치료 인식도에 대한 연구는 총 8가지 문항으로 되어있는 설문을 조사하였다. 첫째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정형도수물리치료에 대한 흥미가 '그렇다', '보통이다'로 나타났고, 정형도수물리치료에 대한 교육이 충분하였는가에 대해 '보통이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정형도수물리치료에 대한 교육 및 특강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 정형 도수물리치료의 치료방법인지 알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도에서 '그렇다', 와 '보통이다' 의견이 많았고, 정형도수물리치료에 대한 효과의 인식도에서 '그렇다'와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정형 도수치료를 관련된 정보 취득방법에 대해 '보통이다'와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졸업 후에 정형 도수치료를 대한 공부 문항에서 '그렇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형 도수치료 종사자의 급여 정도에서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의견이 나타났고, 사회적 지위 문항에서는 '그렇다'와 '보통이다'로 나타났다. Park (2012)과 Kim 등(2004)의 연구와 같이 인식도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종합적으로 물리치료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에게 맞는 물리치료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한다.

물리치료 분야의 정형도수물리치료에 대한 흥미는 1,2학년에서 많이 나타났고, 치료방법과 효과 및 정보를

시대의 흐름 및 사회적 배경에 맞게 교과목 선호도를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이 희망하는 분야에 맞게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반영한다면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졸업 후 임상의 물리치료사가 되어 희망 분야에 맞는 공부가 한층 더 수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Wietinga (2010)의 연구결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관절교정술(thrust joint manipulation; TJM)을 보다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교육도 필요하다. 미국의 Boston에 있는 대학들에서는 TJM을 전공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임상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훈련을 하고 있으며, 정형도수물리치료에 대해 학생들의 참여와 실전경험을 많이 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물리치료사 면허 취득 후 임상 의료기관에 취업하기 전에 대학생들에 대한 정형도수물리치료 실습 및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설문에 참여한 지역이 광주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4년제 대학생들만 설문에 응하여 전국 물리치료 전공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에 더 큰 표본집단으로 모집단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여 설문조사가 이루어 졌으면 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물리치료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물리치료 분야의 정형도수물리치료에 대한 직업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 연구를 시행하였다.

얻는 방법은 미흡하였다. 3,4학년 학생일수록 정형 도수치료를 대해 졸업 후 학습 의욕이 높았으며 특히

남학생은 높은 급여와 사회적 지위로 인해서 세부 전공으로 도수치료 분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물리치료 전공 대학생들의 정형도수물리치료에 대한 인식도와 교육을 위해서 대학 교육과 현장실습연계를 통해 도수치료의 전문성을 가진 의료기관에서 체계적인 학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An RS, Koo JW, Jeong YG. The factors influencing turnover intention of physical therapist.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2018;57(1):351-371.
- Kim B. The east and west investigation research against "the hand technical medical therapy. *Journal of DongBang University*. 2007;1(1):197-237
- Moon SH, LEE S, Bae DK. The history and concept of manual therapy. *JKOA*. 2020;55(1):29-37. <https://doi.org/10.4055/jkoa.2020.55.1.29>
- Kim HB, Kim SY, Kim YM. The comparison about a evaluation and treatment concept of the manual therapy techniques. *Journal of Korean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2005;11(1):49-64.
- Kim HB, Pack GH. A strategic study on development processing and master plan of the OMT in Korea. *Journal of Korean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2004;10(1):43-55.
- Kim JH, Lee GC, Kwon HS. The study on the interest of professional physical therapy(The undergraduate students of dept. of physical therapy in Busan, Ulsan and Kyungnam). *Journal of Korean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2004;10(1):129-145.
- Lee KJ. A study on the job recognition and career preference of physical therapy maj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Science*. 2018;25(3):32-42. <https://doi.org/10.26862/jkpts.2018.12.25.3.32>
- Park BS. A study on career preference after graduation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physical therapy. Eulji university. Master thesis. 2012.
- Park JH, Jung KO, Kyung SH, et al. Attitudes and beliefs of physical therapy students and physical therapists about the system of physical therapy specialists in Korea. *J Korean Soc Phys Med*. 2010;5(1):101-112.
- Park YK. A study on job and task satisfaction of physiotherapist: Focusing on employees in orthopedic manual therapy part. *Journal of Korean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2013;19(1):21-31.
- Wieting JM, Adary MT, Holmes TG, et al. Manipulation, massage and traction. In: Frontera WR, Delisa JA, DeLisa's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5th edition,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2010, 1713-1741.
- Wolf CJ, Brault JS. Manipulation, traction and massage. In: Braddom RL,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5th edition, Philadelphia, Elsevier Health Sciences, 2015, 347-367.
- 논문접수일(Date received) : 2020년 11월 25일
논문수정일(Date Revised) : 2020년 11월 25일
논문게재확정일(Date Accepted) : 2020년 12월 14일